

비행청소년과 정상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 비교 연구

간호학과 전 은 희
전임강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Adolescence)이라는 용어는 Latin語의 Adoles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성장” 또는 “성숙으로의 성장”을 의미한다.¹⁾

인격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는 사춘기와 젊은 성인기 사이의 연령층을 말하며, 이 시기는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2차성장의 출현 등 신체적으로 변화가 오며, 지금까지의 부모에 의한 의존적 상태에서부터 탈피하여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독립된 행동을 하려하는 심리적인 이유가 두드러지고 복잡다양한 생각과 언동이 급격히 변동하여 이른바 성장에 따르는 진통이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²⁾

청소년 심리학을 개발한 최초의 심리학자인 G. Stanley Hall은 청소년을 “폭풍과 노도”의 시기라고 하였고, 또한 “보다 높고 더욱 완전한 인간특징이 새로 태어나기 위한” 새로운 탄생이라고 부연하였다.³⁾ 따라서 청소년기는 심리적 긴장과 불안이 축적되는 정서적 격동기이며, 아동기의 낡은 체제가 무너지고 성인기의 새로운 발달체계에 맞게 자기를 재체제화하여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⁴⁾

청소년기의 연령구분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에 따라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2세에서 21세까지를 지정하고 있으며, 그 시기에 따르는 특수한 심리적 문제에 따라 편의상 초기 청소년기(12~14세), 중기 청소년기(15~17세) 및 후기 청소년기(18~21세)로 나누고 있다.^{5~7)}

오늘날 범세계적으로 청소년층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가치변화에 따른 반사회성과 비사회적 경향이 높아지고 대중매체의 악영향과 종래 가족중심의 권위주의적 가치체계가 개인중심의 민주주의적 가치체제로 전환이 되어 부모나 사회제도가 기관의 통제가능성이 줄어들어 따라 청소년 비행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관심사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행청소년의 양적인 증가 추세를 보면 1974년에 비행청소년의 총수가 49,522명이었으나 1983년도에는 97,124명으로 그 증가율도 무려 51%나 되어 현저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⁸⁾

우리나라에서도 몇 가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보고가 있으나 비행청소년들의 정신건강상태에 관한 보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소년비행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특히 1979년 12월 U.N.총회는 1985년을 국제청소년의 해로 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행청소년들의 정신건강상태를 정상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정상사회활동을 유지하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들의 원만한 사회활동 도모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행에 도움을 줌으로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데,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청소년과 정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체화, 강박증, 예민성,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증, 편집증, 정신증의 측면별로 나타난 정신건강상태를 비교함에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적을 설정하였다.

1. 비행청소년과 정상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한다.
2. 비행청소년과 정상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를 비교한다.

3. 연구의 제한점

1. 연구대상을 3개의 소년원과 1개 중·고등학교에서 임의추출하고 표본 수가 적었으므로 전 집단을 대표한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2. 소년원에 오래 전에 들어와서 선도교육을 받고 있는 원생들은 다소 정상청소년들과 같은 의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비행(Delinquent Behavior)이란 법에 의해 금지되고 혹은 문화가 요구하는 가치개념에 일치하지 않으며, 또는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행동을 초래하는 특히 10대 젊은이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동을 말한다.^{9,10)}

Robert C. Trojanowicz는 비행이란 개념은 같은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충동적이고 동물적인 무의식 속의 본능과 사회적 요구 사이의 갈등 사이에서 빚어진다고 하였다.

Aaron H. Esman¹¹⁾은 비행이란 정신발달 과정 중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정신분석학적으로 신경증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L. Cole¹²⁾은 비행의 원인을 지적수준의 저하, 신체불구, 교육수준의 저하, 사회적 배경을

들었고, Sheldon¹⁸²⁾은 가정적 배경, 체형, 성격구조를 원인으로 보았으며, Susan Irving¹⁴³⁾은 대부분의 비행은 부모의 사랑, 존경, 인도가 결핍될 때 또한 부모 중 특히 아버지가 그들에게 관심이 적었다던가 혹은 너무 엄격하고 징벌적이고 가혹할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문제행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래 동안의 생활경험을 거쳐 오는 동안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성되어진 과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¹⁵⁾

2. 청소년 비행의 요인

인간의 성장과 발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요인은 환경이며, 특히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에 있어 외부적 환경이란 그의 생애를 좌우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¹⁶⁾

비행의 첫째 요인으로는 가정환경을 들 수 있는데 Horney,¹⁷⁾ Ackerman,¹⁸⁾ Bloom,¹⁹⁾ Sutherland,²⁰⁾ 황정규,²¹⁾ 원원식²²⁾ 모두 가정에서의 비행요인으로서 결혼가정을 들었다.

Gregory²³⁾는 편모 슬하에서 자란 소년에게서 많은 비행이 생기며 Greer²⁴⁾는 사회병질자의 59.5%에서 부모상실이 있다고 하였으며, 권순영²⁵⁾은 비행청소년의 40%가 부모를 상실하였다고 보고하였고 박병탁²⁶⁾에 의한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55%가 이러한 결혼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나타났고, 편모슬하에서 자란 비행청소년은 42.2%라고 보고하고 있다.

결혼가정과 정신장애에 관한 연구로는 Ingham,²⁷⁾ Bowlby,²⁸⁾ Oltman²⁹⁾ 등이 대표적이며 국내연구로는 신상철과 우행원,³⁰⁾ 장정부³¹⁾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두번째 가정에서의 비행요인으로서는 경제적 문제를 들 수 있다. 박병탁의 연구도 비행청소년들이 정상군보다 경제수준이 낮았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소야자³¹⁾의 연구를 보더라도 비행군에서는 월수입이 주로 20만원에서 40만원의 분포를 보이고 정상군에서는 약 60%가 31만원에서 50만원의 월수입으로 중류층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숙행³³⁾은 경제상태가 중류층에서 정신분열증이, 신경증은 상류층에서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광주, 전주 지역에 있는 3개 소년원에 재소중인 비행청소년 479명과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1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정상청소년 48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85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1달 동안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소년원 원장님과 학교장님께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허락받은 후

담임선생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려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1개 소년원에서는 본 연구자가 직접 설명을 해 주며 설문응답을 도와 주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연구자가 임의로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조언을 참고로 수정 보완한 18개 문항과 김광일,³⁴⁾ 원호택³⁵⁾이 표준화한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이 정신 진단 검사였다.

이 도구는 9개 증상차원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은 각각 1개의 심리적인 증상을 대표하고 있다. 대상자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는 0점, “약간 있다”는 1점, “웬만큼 있다”는 2점, “꽤 심하다”는 3점, “아주 심하다”는 4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 각 항목에서 얻어진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입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백분율, 평균, x^2 , t-test를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비행청소년과 정상청소년간의 일반적 특성 비교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별 분포는 표1과 같다.

표 1. 비행청소년과 정상청소년간의 일반적 특성 비교

일반적 특성	구 분	비 행 군 N=479		정 상 군 N=483		x^2	자유도	p값
		실수 (명)	비율 (%)	실수 (명)	비율 (%)			
연 령	12 ~ 14 세	3	0.6	72	14.9	227.178	2	0.0000**
	15 ~ 17 세	109	22.8	267	55.3			
	18 ~ 21 세	367	76.6	144	29.8			
종 교	기 독 교	204	42.6	137	28.4	79.354	5	0.0000**
	불 교	96	20.0	82	17.0			
	천 주 교	94	19.6	53	11.0			
	유 교	1	0.2	2	0.4			
	무 교	81	16.9	202	41.8			
	기 타	3	0.6	7	1.4			

일반적 특성	구 분	비행군 N=479		정상군 N=483		x ²	자유도	p값
		실수 (명)	비율 (%)	실수 (명)	비율 (%)			
학 력	국민학교 중퇴	4	0.8			744.980	7	0.0000**
	국민학교 졸업	42	8.8					
	중 학교 재학	16	3.3	149	30.8			
	중 학교 중퇴	194	40.5					
	중 학교 졸업	6	1.3					
	고등학교 재학	30	6.3	334	69.2			
	고등학교 중퇴	178	37.2					
	고등학교 졸업	9	1.9					
출생순위	장 남	121	25.3	148	30.6	14.909	3	0.0049*
	중 간	183	38.2	132	27.4			
	막 내	146	30.5	176	36.4			
	독 자	29	6.1	27	5.6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 생존	342	71.4	457	94.6	94.797	4	0.0000**
	부모 사망	22	4.6	1	0.2			
	편부 생존	26	5.4	6	1.2			
	편모 생존	80	16.7	9	3.9			
	기 타	9	1.9	0	0			
가족의 월수입	10만원 이하	34	7.1	10	2.0	182.140	5	0.0000**
	11~20만원	116	24.2	19	3.9			
	21~30만원	127	26.5	68	14.1			
	31~40만원	105	21.9	128	26.5			
	41~50만원	55	11.5	125	25.9			
	50만원 이상	42	8.8	133	27.5			
가족제도	핵 가족	416	86.8	428	88.6	2.092	1	0.3513
	대 가족	63	13.2	54	11.2			
주거지역	주 택 가	318	66.4	390	80.7	61.198	4	0.0000**
	아파트단지	35	7.3	47	9.7			
	상 가	57	11.9	38	7.9			
	공장지대	41	8.6	5	1.0			
	유흥지대	28	5.8	3	0.6			
통학시 소요되는 시간	15분 이내	111	23.2	174	36.0	24.543	5	0.0002**
	16~30분	258	53.9	240	49.7			
	31~45분	54	11.3	36	7.5			
	46분~1시간	42	8.8	24	5.0			
	1시간 이상	11	2.3	8	1.7			
	2시간 이상	3	0.6	1	0.2			

일반적 특성	구 분	비행군 N=479		정상군 N=483		x ²	자유도	p값
		실수 (명)	비율 (%)	실수 (명)	비율 (%)			
부친의 직업	전 문 직	20	4.2	35	7.2	187.887	9	0.0000**
	회 사 원	48	10.0	90	18.6			
	교 육 원	8	1.7	11	2.3			
	상 업	119	24.8	206	42.7			
	농 업	107	22.3	13	2.7			
	공 업	18	3.8	34	7.0			
	노 동	66	13.8	15	3.1			
	무 직	20	4.2	11	2.3			
	기 타	33	6.9	62	12.8			
비 해 당	40	8.4	6	1.2				
모친의 직업유무	유	214	45.7	145	30.0	31.982	2	0.0000**
	무	249	53.2	338	70.0			
	비 해 당	16	1.1	0	0			
부친의 교육수준	무 학	29	6.3	3	0.6	225.444	6	0.0000**
	국민학교 졸업	164	34.2	34	7.1			
	중 학교 졸업	122	26.6	69	14.4			
	고등학교 졸업	126	27.5	207	43.3			
	초급대학 졸업	4	0.9	8	1.7			
	대 학교 졸업	26	5.7	157	32.8			
	비 해 당	8	1.7	5	0.1			
모친의 교육수준	무 학	49	10.5	6	1.2	185.582	6	0.0000**
	국민학교 졸업	204	42.6	89	18.5			
	중 학교 졸업	153	32.8	149	30.9			
	고등학교 졸업	52	11.1	172	35.7			
	초급대학 졸업	11	2.4	8	1.5			
	대 학교 졸업	5	1.1	58	12.0			
	비 해 당	5	1.1	1	0.2			
성장시 기거장소	부모와 함께	293	61.2	449	93.0	156.226	6	0.0000**
	친척 집	26	5.4	9	1.9			
	자취	19	4.0	9	1.9			
	하숙	2	0.4	3	0.6			
	사회복지기관	121	25.3	6	1.2			
	주거부정	10	2.1	1	0.2			
	기 타	8	1.6	6	1.2			
성장과정 동안	부모가 이혼하였다	36	7.6	12	2.5	97.336	4	0.0000**
부모의 동거여부	부모가 별거중이었다	76	15.9	16	3.1			

일반적 특성	구 분	비행군 N=479		정상군 N=483		x ²	자유도	P값
		실수 (명)	비율 (%)	실수 (명)	비율 (%)			
	계부 슬하였다	19	4.0	3	0.6			
	계모 슬하였다	25	5.3	3	0.6			
	비해당	322	68.2	449	93.2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	진로문제	167	34.9	355	73.5			
	이성문제	30	6.2	15	3.1	154.949	4	0.0000**
	건강문제	42	8.8	31	6.4			
	성격문제	70	14.6	35	7.2			
	학교·사회생활 적응문제	170	35.5	47	9.7			
대상자가 인지한 가정내 문제점	경제적으로 어렵다	218	37.3	165	34.2			
	형제간 사이가 나쁘다	26	6.0	40	8.3	16.600	5	0.0053**
	집안에 우환이 있다	45	10.4	38	7.9			
	부모가 자식을 불신 임 한다	24	7.8	27	5.6			
	부모 사이가 나쁘다	29	6.7	25	5.2			
	부모와 대화할 시간 이 없다	137	31.8	188	38.9			

** p<0.001, * p<0.01

- 연령별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즉 비행군에서는 18~21세층이 76.6%, 정상군에서는 15~17세층이 55.3%로 가장 많았다.
- 종교유무별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즉 비행군에서는 기독교가 42.6%, 정상군에서는 무교가 41.8%로 가장 많았다. 이는 종교와 청소년 비행과의 인과관계라기 보다는 비행군에 있어서 입소한 후 자신의 비행에 대하여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종교와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학력별 분포도 역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군에서는 중학교 중퇴가 40.5%, 정상군에서는 고등학교 재학이 69.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정상군은 1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었고, 비행군의 대부분은 저학력 상태인 것으로 보아 학교생활의 실패와 비행간의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 출생순위별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즉 비행군에서는 중간이 38.2%인데 비해 정상군은 27.4%였으며, 막내인 경우 정상군 36.4%에 비해 비행군은 30.5%로 비행군은 중간이, 정상군은 막내가 가장 많았다. 이는 조속행이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의 영향하에 성장하였을 경우, 특히 중간순위에서 정신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와 일치하며, 이러한 가족상황하에서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고 부모의 사랑이 장남과 막내에게 치우쳐 다른 형제와의 갈등이 심해지지 않나 생각된다.

5. 부모의 생존여부별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비행군과 정상군에서 모두 부모생존이 가장 많았고, 비행군에서는 편모생존이 16.7%로 정상군의 3.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Glueck sheldon이 주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의 부모상실은 주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경우와 특히 편부보다 편모슬하에서 비행이 많이 발생한다는 박병탁, 임현택,³⁶⁾ Gregory의 보고와 일치한다.

6. 가족의 월수입별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비행군에서는 21~30만원이 26.5%, 정상군에서는 50만원 이상이 27.5%로 가장 많았다. 이는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에서의 자녀는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경제수준이 자극적인 행동을 유발한다고 한 이규환³⁷⁾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보며, 비행군이 정상군보다 경제수준이 낮았다는 박병탁, 김소야자의 보고와도 일치하였다.

7. 가족제도별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35$).

즉 핵가족의 경우 비행군은 86.8%, 정상군은 88.6%로서 대부분 핵가족이었으며, 대가족의 경우 비행군 13.2%, 정상군 11.2%로 나타났는데, 이는 석재호,³⁸⁾의 연구중 대가족의 자녀들이 정신증 발생의 빈도가 높다는 결과와는 대조적이었다.

8. 주거지역별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비행군에서는 주택가, 상가, 공장지대의 순위를 보였으나 정상군에서는 주택가 아파트단지, 상가의 순위를 보여 비행군이 정상군보다 상가와 공장지대에서 주거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환경으로 접하는 주거지역이 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한 노경희,³⁹⁾ 양춘⁴⁰⁾의 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주거지역이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영수⁴¹⁾의 보고와는 대조적이었다.

9. 통학시 소요되는 시간별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통학소요시간이 15분 이내인 경우는 비행군 23.2%, 정상군 36.0%였으나 16분~1시간 이내인 경우는 비행군 74.0%, 정상군 62.2%로서 비행군이 정상군보다 통학소요시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10. 부친의 직업별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비행군의 경우 상업, 농업, 노동의 순이었으나 정상군에서는 상업, 회사원, 전문직의 순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비행군의 생활권은 서울과 지방이며 정상군은 서울에 한정된 것에 기인한다고 보겠으나 일반적으로 월수입과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부친이 수입이 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의 자녀와 비행과는 관련성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11. 모친의 직업유무별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모친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비행군 45.7%, 정상군 30.0%로서 비행군에서 모친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정상군보다 많았다.

12. 부친의 교육수준별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비행군에서는 국졸이 34.2%로 가장 많고 고졸 27.5%, 중졸 26.6%로 주로 초·중등 교육을 받으므로 나타난 반면 정상군에서는 고졸이 43.3%, 대졸 32.8%, 중졸이 14.4%로 비교적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모친의 교육수준별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군에서는 국졸, 중졸, 고졸의 순이었고 정상군에서는 고졸, 중졸, 국졸의 순으로 비교적 비행군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성장시 기거장소별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정상군의 경우 대부분(93.0%)이 부모슬하에서 성장하였으나 비행군의 경우는 61.2%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고아원과 같은 사회복지 기관에서 성장한 경우가 25.3%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이란 사회가 대항하지 못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모든 문제를 가족과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 부담감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장시 가정환경이 비행의 중요변수로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15. 성장과정시 부모의 동거여부별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성장과정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중인 경우가 비행군에서는 23.5%인 반면 정상군에서는 5.6%에 불과하였으며, 계모나 계부슬하에서 성장한 경우가 비행군에서는 9.3%이나 정상군에서는 1.2%에 불과하였다. 이는 결손가정과 비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 Shaw와 McKay와의 보고와는 대조적이었으나 부모의 이혼과 별거집단에서 비행과 정신적 장애를 많이 일으킨다는 Ingham, Greer, Gregory, 권순영, 한상엽,⁴²⁾ 유태열,⁴³⁾ 박병탁, 정선

자⁴⁴⁾의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었다.

16.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별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비행군에서는 학교나 사회생활 적응 문제가 35.5%, 진로문제가 34.9%, 성격문제가 14.6%의 순이었고, 정상군에서는 진로문제가 73.5%로 가장 많고 학교나 사회생활 적응 문제가 9.7%, 성격문제 7.2%의 순이었다.

17. 대상자가 인지한 가정내 문제점별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비행군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37.3%로 정상군의 34.2%보다 높게 반응하였다. 그리고 정상군에서는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38.9%로 가장 높았으며, 비행군의 31.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가정의 경제상태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존경, 또한 자신의 문제점을 상의할 대상 또한 부모와 대화할 때 한 인간으로서의 인정 등이 결핍될 때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나 생각된다.

18. 성장과정 동안 영향을 받은 3사람만 순서로 기록하라는 문장에서는(표2) 비행군과 정상군에서 모두 어머니, 아버지, 스승, 동료, 선배순이었으나 정상군은 어머니, 아버지, 스승이 89.5%인데 비해 동료와 선배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중요시한 Freud와 Sullivan의 의견과 비행의 환경적 요소로서 특히 부모와의 관계와 청소년 비행간에 상관성을 보고한 다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45~47)}

표 2. 성장과정 동안 영향을 받은 사람

일반적 특성	구 분	비 행 군 N=479		정 상 군 N=483	
		실수(명)	비율(%)	실수(명)	비율(%)
성장과정 동안 영향을 받은 사람	아 버 지	295	28.2	347	32.0
	어 머 니	344	32.9	366	33.7
	스 승	155	14.8	258	23.8
	선 배	83	7.9	14	1.3
	동 료	140	13.4	84	7.7
	기 타	28	2.7	17	1.6

(한 사람이 3명씩 기입)

2. 비행청소년과 정상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 비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비행청소년들과 정상청소년들의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점수를 t-test로 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표 3. 비행청소년과 정상청소년들의 정신건강상태 비교

대상자 척도 내용	비행군 N=479 평균	정상군 N=483 평균	t값	p값
신 체 화	13.22	6.67	16.28	0.000**
강 박 증	15.39	10.34	12.80	0.000**
예 민 성	12.99	8.08	14.28	0.000**
우 울 증	18.71	10.05	17.16	0.000**
불 안	12.95	6.50	17.49	0.000**
적 대 감	8.12	4.39	13.90	0.000**
공 포 증	6.00	2.82	13.82	0.000**
편 집 증	7.57	3.62	17.46	0.000**
정 신 증	13.16	5.53	20.95	0.000**

** p<0.001

1. 비행군의 신체화 점수의 평균은 13.22, 정상군은 6.67로서 비행군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6.28, p=0.000)

2. 비행군의 강박증 점수의 평균은 15.39, 정상군은 10.34로서 비행군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2.80, p=0.000)

3. 비행군의 예민성 점수의 평균은 12.99, 정상군은 8.08로서 비행군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4.28, p=0.000)

4. 비행군의 우울증 점수의 평균은 18.71, 정상군은 10.05로서 비행군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7.16, p=0.000)

5. 비행군의 불안 점수의 평균은 12.95, 정상군은 6.50으로 비행군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7.49, p=0.000)

6. 비행군의 적대감 점수의 평균은 8.12, 정상군은 4.39로서 비행군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3.90, p=0.000)

7. 비행군의 공포증 점수의 평균은 6.00, 정상군은 2.82로서 비행군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3.82, p=0.000)

8. 비행군의 편집증 점수의 평균은 7.57, 정상군은 3.62로서 비행군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7.46, p=0.000)

9. 비행군의 정신증 점수의 평균은 13.16, 정상군은 5.53으로서 비행군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20.95, p=0.000)

이상의 결과를 검토해 볼 때 신체화, 강박증, 예민성,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증, 편집증, 정신증의 모든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었으며, 비행군은 우울증 점수가 가장 높았고 정상군은 강박증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우울증과 강박증으로 말미암아 정신건강에 많은 장애를 받고 있다는 원호택과 정선자의 보고와도 일치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변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더욱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비행 청소년과 정상청소년들간에 일반적 배경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신건강상태를 신체화, 강박증, 예민성,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증, 편집증, 정신증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이를 기초로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도움이 되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연구기간은 1985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였으며, 서울, 광주, 전주지역에 위치한 3개의 소년원에 재소중인 479명과 서울시내에 위치한 1개 중·고등학교 학생 483명, 총 9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Derogatis⁴⁸⁾ 등이 개발하고 김광일, 원호택이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와 이에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18문항의 설문이었으며 질문지법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rogram에 의해 평균, x^2 , t-test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청소년과 정상청소년간의 일반적 특성 비교

1. 연령별로는 비행군에서는 18~21세층이, 정상군에서는 15~17세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종교별로는 정상군은 무교와 가장 많은데 비해 비행군은 거의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소년원에 입소한 후 종교를 갖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3. 학력별로는 비행군은 중학 중퇴가 가장 많았고, 정상군은 고등학교 재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상군 대상의 69.2%가 고등학교 재학생이라는 데 기인한 현상이라 본다.

4. 출생순위별로는 비행군에서는 중간이, 정상군에서는 막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부모의 생존여부별로는 양쪽 모두 부모 생존이 가장 많았으나 편모생존은 비행군이 정상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가족의 월수입별로는 비행군에서는 21~30만원, 정상군에서는 50만원 이상으로 비행군이 정상군보다 가정경제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 가족제도별로는 양쪽 모두 핵가족이었으나 대가족인 경우 비행군이 정상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주거지역별로는 양쪽 모두 주택가가 많았으나 비행군의 경우 정상군에서보다 상가와 공장지대에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통학시 소요되는 시간별로는 비행군이 정상군에서보다 통학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10. 부친의 직업별로는 양쪽 모두 상업이 가장 많았으나 비행군이 정상군에서보다 사회급이 낮은 농업과 노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모친의 직업유무별로는 비행군이 정상군에서보다 모친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부친의 교육수준별로는 비행군에서는 초·중졸이 많은 반면 정상군에서는 비교적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모친의 교육수준별로는 비행군의 경우 정상군보다 모친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성장시 기거장소별로는 정상군은 대부분이 부모슬하에서 성장하였으나 비행군의 경우 정상군보다 특히 사회복지 기관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 성장과정시 부모의 동거여부별로는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한 경우 또한 계부나 계모 슬하도 비행군이 정상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별로는 학교나 사회생활 적응문제와 진로문제, 성격문제에서 모두 비행군이 정상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 대상자가 인지한 가정내 문제점별로는 양쪽 모두 경제적으로 어렵다.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안에 우환이 있다, 부모가 자식을 불신임한다, 부모 사이가 나쁘다는 비행군이 정상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 성장과정 동안 영향을 받은 사람별로는 양쪽 모두 어머니, 아버지, 스승의 순이었으나 비행군의 경우 정상군보다 동료와 선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 비행청소년과 정상청소년들간의 정신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신체화, 강박증, 예민성,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증, 편집증, 정신증의 모든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01$)가 있었으며, 비행군은 우울증 점수가, 정상군은 강박증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행위정도와 관계가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이러한 도구활용에 대한 간호원의 역할이 재강화됨으로서 청소년의 비행행위를 사전예방하는데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도시청소년 집단과 지방청소년 집단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2. 남·여 소년원생들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3. 정상청소년 집단과 선도교육을 받지 않은 가위탁생들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4.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와 한국의 전통문화에 맞는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5. 비행청소년 집단과 정상청소년 집단의 일반적 특성별 정신건강상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송종두(1981), 「청소년 이론」, 경북, 계명대학교 출판부, pp.10~60.
2. 한동세(1983), 「정신과학」, 서울, 일조각, p.66.
3. 함중찬(1980), 「청소년 이해를 위한 접근」, 서울, 상조사, pp.11~340.
4. 김중대(1983), 「정신위생」, 서울, 수문사, pp.122~173.
5. Hurlock, E.B.(1955), *Adolescent Development*, 2n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pp.1~18.
6. Erik Erikson(1967), *Identity: Youth and Crisis*, W.W. Norton co. Inc., pp.91~141.
7. Werkman, S.L.(1974), *Psychiatric disorders of Adolescence*,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2nd ed., New York: Arieti, pp.223~224.
8. 청소년대책위원회(1984), 「청소년 백서」, 문교부, pp.429~442.
9. Marion, E. Kalkman, and Anne, J. Davis.(1974), *New Dimensions in mental health psychiatric nursing*, 4th ed., New York: McGraw-Hill, pp.58~539.
10. Martin, H. Neumeyer.(1949), *Juvenile Delinquency in Modern Society*, Canada: D. Vanstrand co. Inc., pp.22~169.
11. Aaron, H. Esman.(1975),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International Univ. Press, pp.75~220.
12. Luella, Cole.(1948), *Psychology of Adolescence*, 3rd ed., New York: Rinehart Company Inc., pp.3~20.
13. Glueck, Sheldon.(1952), *Delinquent in the Making*, New York: Harper, pp.13~16.
14. Susan, Irving.(1978), *Basic Psychiatric Nursing*, 2nd ed., Philadelphia: Saunders, pp.47~143.
15. Freedman, A.M.(1975), *Modern Synopsis of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2nd ed., Baltimore: Williams and Wilkons co., pp.613~619.
16. 이영덕·정원식(1962), 「생활지도의 원리와 실제」, 서울, 교육도서주식회사, pp.4~7.
17. K. Horney.(1937), *The Neurotic Personality of our time*, New York: W.W. Norton, pp.80~81.
18. Ackerman, N.W.(1959), *The Psychodynamic of family life*, New York: Basic Books, pp.211~225.
19. B.S. Bloom.(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p.87.
20. E.H. Sutherland.(1969), *Principles of Criminology*, 15th ed., Chicago: J.B. Lippincott. co., pp.49~140.

21. 황정규(1964), 「행동진단의 기술」, 서울, 현대교육총서, pp.244~245.
22. 정원식(1970), 「인간과 교육」, 서울, 배영사, pp.121~131.
23. Ian, Gregory.(1965), "Anterospective Data following Childhood loss of a Parent," *Arch. of Gen. Psychiatry*, Vol. 13, pp.99~109.
24. Steven, Greer.(1964), "Study of Parental loss in Neurotic and Sociopaths," *Arch. of Gen. Psychiatry*, Vol. 11, pp.177~180.
25. 권순영(1963), "오늘의 소년범죄," *신경정신의학*, 제2권 2호, pp.17~19.
26. 박병탁(1978), "비행청소년의 부모상실에 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제17권 3호, pp.263~269.
27. H.V. Ingham.(1949), "A Statistical study of family relationship in Psychoneuroses," *A.J. of Psychiatry*, Vol. 106, pp.91~98.
28. John, Bowlby.(1961), "Childhood Mourning and it's Implication of Psychiatry," *A.J. of Psychiatry*, Vol. 18, pp.481~498.
29. Jane, E. Oltman.(1965), "Report on Parental deprivation on Psychiatric disorders," *Arch. of Gen. Psychiatry*, Vol. 12, pp.45~46.
30. 신상철·우행원(1970), "정신분열증 환자의 조실부모," *신경정신의학*, 제9권 1호, pp.9~12.
31. 장정부(1971), "한국인 조기 부모 사별과 정신과적 장애에 관한 고찰," *카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제20권, pp.185~200.
32. 김소야자(1983), "비행청소년 발생과 가족환경과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13권 1호, pp.34~40.
33. 조숙행(1979), "청소년의 정신장애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제18권 3호, pp.298.
34. 김광일·김재환·원호택(1984), 「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35. 원호택(1978), "간이 정신진단검사 한국 표준화 연구 II," *한양대학교 논문집*, 제12집 pp.457~473.
36. 임현택(1979), "근로청소년의 사회정신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18권 3호, pp.276~289.
37. 이규환(1978), 「교육사회학」, 서울, 배영사, pp.111~113.
38. 석재호(1969), "한국인 정신분열증 환자와 출생순위 및 자녀수에 대한 소고," *신경정신의학*, 제8권 1호, pp.69~72.
39. 노경희(1981), "청소년 비행에 관한 고찰," *고신대학 논문집*, 제9집, pp.1~9.
40. 양 훈(1984), 「청소년 문제와 노인문제」, 서울, 정음사, pp.30~141.
41. 이영수(1983), "비행학생 선도를 위한 탐색적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42. 한상엽(1974), "청소년기 정신과 외래환자의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제13권 4호, pp.408~411.
43. 유태열(1975), "청소년기 정신과 입원환자의 임상적 고찰," *카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제28권 1호, pp.49~56.
44. 정진자(1982), "비한호계와 한호계 여대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제27권 4호, pp.65~79.
45. Gibbon, Don. Cary.(1970), *Delinquent Behavior*, New Jerse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pp.126~128.
46. Caldwell and Black(1971),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Ronald Press, pp.11~12.
47. Robert, C. Trojanowicz(1973), *Juvenile Delinquency: Concepts and Control*, 3r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pp.81~108.
48. Derogatis, L.R.(1971), "Neurotic Symptom dimensions," *Arch. Gen. Psychiatry*, Vol. 24, pp.454~464.

A Study on the Mental Health Status in Juvenile Delinquent and Non Juvenile Delinquent

Eun-hee Jun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assess the mental health status between juvenile delinquent and non delinqu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status and to provide objective and scientific data with health education, treatment and nursing care.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479 juvenile delinquent selected from juvenile reformatory in Seoul, Kwang Ju and Jeon Ju and 483 non delinquent selected from middle and high school in Seoul.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Mar. 15 to Apr. 15, 1985.

The measurement tool was the SCL-90-R that developed by Derogatis et al.

Analysis of data was done by using χ^2 , t-test.

The result of study were as follows;

1.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juvenile delinquent and the non juvenile delinquent (Abbreviation; JD-juvenile delinquent, NJD-non juvenile delinquent)
 - 1) Age distribution; The JD of 18~21 ages are most common and "15~17" in NJD
 - 2) Religion; "No religion" are the most common NJD. The most DJ have religion
 - 3) Educational level; Those who "leave middle school in midcourse" are most common in the JD & "being in high school" in NJD
 - 4) Birth order; "The last born" are most common in JD & "The middle born" in NJD
 - 5) In the parents' existence; Those who are JD tend to have more widowed mother than NJD
 - 6) Economic status; Those who are JD have lower economic status than NJD
 - 7) Type of Family; "Nuclear Family" are considerably common. "Extended Family" are more common in the JD.
 - 8) Pattern of residence; JD who live live in downtown area or factory area are more prominent.
 - 9) In the time required for school attending; The JD necessary longer time than the NJD

- 10) In the fathers' occupation; "Business" are most common. "farming or labor" in the JD are more common than NJD.
 - 11) Presence of the mothers' occupation; JD have more "employed mother" than NJD
 - 12) In the parents' educational level; The parents of JD have lower educational level than NJD
 - 13) In the place of growth; JD who live at orphanage are more common than the NJD.
 - 14) In the parents' existence during growth; JD who live under the parental divorce or separation state and stepmother or stepfather are most common.
 - 15) In the presents' chief complain; Those who are JD have more social adaptation.
 - 16) Family problem; "Economic problem" & "In sufficient communication with parent" are considerably common.
 - 17) Significant others; mother, father, teacher in order. JD are more affect by friend or senior.
2. The result of comparing with status of mental health between juvenile delinquent and non juvenile delinquent expressed a very profittable difference.
- A group of juvenile delinquent expressed the highest response to depression and non juvenile delinquent, obsessive-compulsive.
- 1) A group of juvenile delinquent was higher than non juvenile delinquent in somatization. ($t=16.28$, $p=0.000$)
 - 2) A group of juvenile delinquent was higher than non juvenile delinquent in obsessive-compulsive reaction. ($t=12.08$, $p=0.000$)
 - 3) A group of juvenile delinquent was higher than non juvenile delinquent in interpersonal sensitivity. ($t=14.28$, $p=0.000$)
 - 4) A group of juvenile delinquent was higher than non juvenile delinquent in depression. ($t=17.16$, $p=0.000$)
 - 5) A group of juvenile delinquent was higher than non juvenile delinquent in anxiety. ($t=17.49$, $p=0.000$)
 - 6) A group of juvenile delinquent was higher than non juvenile delinquent in hostility. ($t=13.90$, $p=0.000$)
 - 7) A group of juvenile delinquent was higher then non juvenile delinquent in phobia. ($t=13.82$, $p=0.000$)
 - 8) A group of juvenile delinquent was higher than non juvenile delinquent in in paranoia. ($t=17.46$, $p=0.000$)
 - 9) A group of juvenile delinquent was higher than non juvenile delinquent in psychoticism. ($t=20.95$, $p=0.000$)